



# 인도네시아 양계시장



▲ A형케이지 설치 현지 농장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 위치하며 적도를 가로질러 길게 뻗어 있는 인도네시아는 약 18,0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었으며, 면적 190여만km<sup>2</sup>에 인구 2억5천3백만명의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면서 이슬람 국가로 육류소비중 닭고기, 계란 소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국토와 재래식 방식의 양계 및 이와 관련한 양계기자재 산업의 낙후 등으로 인해 ‘자동화된 현대적 직립식 케이지’ 도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잘 알다시피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 인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이러한 성장 추세에 따라 주요 단백질 섭취 음식의 하나로 닭 관련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육계시장 관계자는 닭고기 소비가 5년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양계산업의 성장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양계산업은 사료공급회사, 옥수수 생산자, 원재료 공급자,



김현석  
보일공업(주) 대표



▲ 인도네시아 전도



▲ '보일 만디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사무실 전경

대형 상업적 육계, 계란 생산/가공회사, 관계 정부 당국 등에 의해 성장, 육성,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료 수입정책, 옥수수 작황, 사료회사의 농장과의 연계 등이 변수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몇 년 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농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옥수수의 해외 수입을 제한했을 때 사료 원료 값이 크게 올라 사료 생산자들과 양계농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50~80%의 사료 원료를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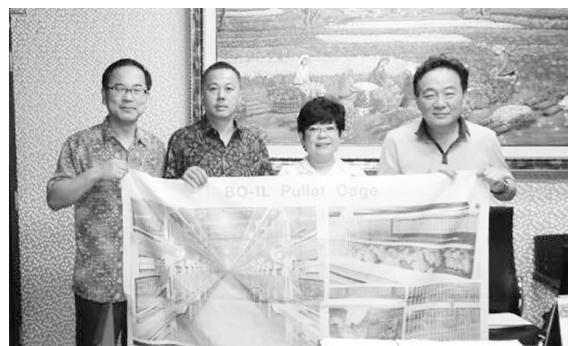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양계산업의 지형적 분포를 보면 육계 전체 시장(약 15억6천만수, 2015년)의 42% 정도가 서부 자바에서 사육되고 있으며(약 6억5천만수, 2016년 7월) 산란계는(약 1억6천 만수, 2015년) 33% 정도가 동부 자바에서 사육

되고 있다(약 4천8백만수, 2016.7월). 그리고 CP, JAPFA, MALINO, SIERAD 등 대형 사료 회사를 비롯한 수직적 결합주체들이 상업적 시장의 70%를 지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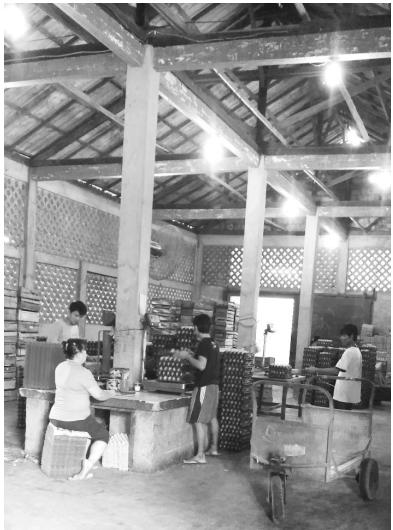
육계 DOC는 대형 양계회사 자체 농장에서 10%, 위탁계약 농장에서 70%, 일반 독립 농가에서 20%의 구조로 사육된다고 한다. 보통 출하는 30일령 평균 1.4kg 이다. 인도네시아 육계 농장의 단 2%만이 완전 무창계사이며 대다수의 일반 농장들은 개방계사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다. 케이지는 거의 대부분 대나무나 철사로 만들어진 것이며 급이, 계분처리, 급수 등은 값싼 노동력으로 사람이 직접하고 있다. 보통 이러한 농장의 사육 규모수는 2만 수 안쪽이다. 질병, 고온 등으로 인해 폐사율은 8%를



▲ 지난 9월 산란계 케이지 계약 체결후 인도네시아 고객(가운데)과 기념촬영



▲ 작년 8월 육계케이지 계약체결후 인도네시아 고객(가운데)과 기념촬영



▲ 현지 농장의 집란장



◀ 현지 닭고기 판매 시장

▼ 현지 농장의  
산란계 케이지



▶ 인도네시아  
재래식 양계장 모습



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10만수를 사육하는 재래식 산란계 농장을 예를 들면 1개 계사(폭 10m, 길이 20m)에 3,000수 정도 사육하는 소규모 계사가 30여개 정도가 군집되어 있으며 1개 소규모 계사를 2명이 관리하면서 집란, 급이, 급수, 계분처리 등을 모두 인력으로 하고 있다. 10만수를 사육하는데 약 7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지 규격은 폭, 길이, 높이 모두 45cm 정도인데 1 케이지당 사육 수는 3~4 마리이며 1수당 하루 사료량은 115~120g 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닭고기와 계란 소비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간 닭고기 생산량은 1,630만톤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4.8kg이며 연간 계란생산량은 138만톤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97개로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불안정 한 것도 생산과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금년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난후 르바란 명절이 시작된 7월부터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한다. 2016. 9월 기준 평균 계란 가격은 1kg(1kg은 계란 15~17개)에 17,500루피아(한화 1,750원), 생산원가는 16,000루피아(한화 1,600원)이며 닭고기 평균가격은 1kg에 18,500루피아(한화 1,850원), 생산원가는 16,500루피아(한화 1,65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란계 DOC는 1수 6,000루피아(한화 600원), 육계 DOC는 1수 5,500루피아(한화 550원)이다.

인도네시아의 개략적인 양계산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양계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하겠다. 또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이나 다른 산업의 성장 잠재성을 보고 최근 한국의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의 시장 문을 두들기고 있다. **양계**